6·4 지방선거 확대경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전략공천설 왜 끊이질 않나

"새정치 배려" "민주 양보"…일부 계파 꾸준히 제기

"야권 심장서 광주정신 맞는 인물로 바람을"

"광주 시민여론 무시가 새정치냐"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또 다시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설은 구 민주당과 구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을 선언한 이후부터 흘러나온 바 있다.

이는 민주당과 합당한 새정치연합 측을 배려,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 최소 한 곳은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배경이 됐다.

이 같은 전략공천설은 지난 달 김한길 대표가 신당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공천은 지분에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최적, 최강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데 (안 위원장과) 공감했다"며 "이는 안철수식 새정치의 일단"이라고 밝힌 뒤 잠잠해졌다.

하지만 광주시장 전략공천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이 구체화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명분은 구 새정치연합 후보 배려 차원에서 '새정치의 상징성이 확보되는 후보'와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로 바뀌었다.

새정치와 광주정신에 맞는 인물이 광주시장 후보가 돼야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바람이 불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 지도부 일부 인사와 구 새정치연합 출신 인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새정치와 광주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새정치와 광주정신에 맞는 적절한 후보 선출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를 묻는 '경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의사를 묻는 경선을 치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분 공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아직까지 광주와 호남에 대한 오만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는 무리한 전략공천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호남 볼모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용섭 의원도 "(전략공천)을 시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분나누기 전략공천설이 사실이라면 새정치는 변화의 발원지인 광주에서부터 실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에서 전략공천을 강행한다면 '새정치의 역주행'에 대한 시민의 반발 등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의 역주행은 수도권 등 전체적인 지방선거 판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정치의 근본은 시민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라며 "전략공천에 특정인 배제 등의 정치적 꼼수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선을 통해 새정치를 실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김한길(왼쪽)·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전(全)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연합뉴스

'무공천 여론조사'…安 승부수, 성공땐 입지 탄탄 실패땐 대표직 위태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묻기 위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결과가 6·4 지방선거 전체 선거구도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론 수렴 결과, '공천'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새정치연합은 '무공천'이라는 두 개의 룰에 따라 경쟁을 하는 일이 없어져 양당 간 1대1 구도가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예상대로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지난 대선 때 내세운 공약도 파기하는 꼴이 돼 '약속 정치'를 강조해 온 자신의 신뢰 이미지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지난 8일 김한길 대표에게 "신임투표도 받아들일 각오가 있다", "백의종군할 각오로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비장함이 감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늦게나마 기초선거 공천에 나설 경우 전국적으로 할지, 또는 호남만은 제외할지도 관심사다. 기초선거 궤멸의 우려 때문에 무공천 약속을 깨는 만큼 패배와는 거리가 먼 호남에서만이라도 무공천을 실천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호남에서는 '공천권=기득권'이라는 인식이 심한 곳이라서 기득권 버리기 차원에서 호남이라도 무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반면, 항상 호남만 기득권 버리기의 대상이 되면서 야당의 본거지인 호남 정치권만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도 있어 추후 상황에 따라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무공천' 결론이 나오면 안 대표의 당내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당은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 대표는 기초선거 공천을 주장했던 당내 세력을 제압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초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가 커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여론조사가 설문 문항 때문에 2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당 일각에서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당내 갈등의 불길한 조짐은 남아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연을 가슴으로 맞이한 화가의 감성

김은영의 '그림 생각'

(69) 목련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구름 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빛나던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박목월 작 '사월의 노래'중에서〉

목련꽃이 피면 시인의 노래처럼 그 그늘 아래서 무엇이라도 읽고 싶어진다. 목련은 그렇다! 봄이 왔기에 목련이 피는 것이 아니라 목련이 피어서 봄이 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화가들에게 목련꽃은 계절의 기쁨이기에 앞서 조형적으로도 끌리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맑은 공기와 투명한 빛의 발견으로 밝고 명랑한 색조의 한국적 인상주의를 개척한 오지호선생(1905~1982) 역시 남도의 산하와 일상의 친근한 정취를 주로 그려왔지만 목련, 모란 등 꽃을 소재로 한 작품도 다수 남겼다. 작품 '목련'(1966년)은 봄날 목련꽃의 세 가지 표정을 한 화면에서 보여준다. 이제 갓 눈을 뜬 봉오리의 두근거림, 조심스럽게 잎을 여는 수줍음, 활짝 피어난 순간의 환희를 연상시키는 세 떨기 목련꽃에서 자연을 가슴으로 마주했던 화가의 감성을 만나게 된다.

오지호 작 '목련'

'위대한 화가이면서 위대한 이론가'인 경우가 드문 우리나라에서 오지호선생은 일찍이 색채에 대한 정연한 이론과 분석을 열정적으로 개진해 '순수회화론' 등 미술론을 정립하기도 했다. 그가 왜 대가인지, 왜 지금까지도 오지호 화풍이 남도 화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화가의 작품은 '지산동 오지호 家'의 꽃밭에 서있는 목련을 그린 것이라 한다. 그 목련을 보고 싶어 지난 주말 '지산동 오지호 家'를 찾았다. 화가가 생활했었던 초가집은 여전하고 간결한 규모의 화실 앞 목련을 비롯해 동백, 모란, 히야신스, 수국들이 따순 봄빛을 즐기고 있었다. 아쉽게도 목련꽃은 이미 지고, 꽃 진 자리엔 연두빛 여린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새정치연합 광역후보 경선 여론·공론조사

與지지층 배제 안돼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방식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선거인단 대상에 여권 지지층을 포함하느냐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경선 시행에 대해 일부 후보는 '중대 결심'까지 경고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의 불씨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이용할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설문에 나이와 주소만 질문하고 지지 정당은 묻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즉, 여야 지지층 모두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설문은 과거 민주당 경선과 야당 후보 간 단일화 경선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역선택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 방식은 김한길 공동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당내에서 일고 있다.

더욱이 안 대표 측 후보로 평가되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이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안 대표 측을 배려했다는 명분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실제로 김 전 교육감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선택' 방지 대책이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도 아직 쟁점화하지 않고 있지만 후보 간 유불리에 따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